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박 신 영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지도교수 이 훈 진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박 신 영

박신영의 심리학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와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심리적, 발달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사이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완전 매개역할을,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매개효과 크기차이 검증 결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더 컸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제시하였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과 수행불안 집단 간에 상황별 불안 수준,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 스크립트에서 수행불안 집단보다 높은 불안을 보고했고, 수행불안 스크립트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 수준은 수행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둔 사회불안의 치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

**학 번 :** 2012-20107



# 목 차

국문초록 .....	i
서    론 .....	1
사회불안장애의 개념 및 하위유형 .....	2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	3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 및 사회불안 .....	6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0
연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	12
방법 .....	13
결과 .....	16
논의 .....	27
연구 2.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	31
방법 .....	32
결과 .....	35
논의 .....	38
종합논의 .....	40
참고문헌 .....	45
부    록 .....	59
영문초록 .....	82

## 표 목 차

표 1. 연구 1에서 수집된 측정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6
표 2. 연구 1에서 수집된 측정치들의 상관계수 .....	17
표 3.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20
표 4.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21
표 5.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23
표 6.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	23
표 7.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24
표 8.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25
표 9.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	25
표 10. 집단별 나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점수 .....	35
표 11. 집단별 스크립트에 대한 불안 활성화정도, 거부민감성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 .....	37

## 그림 목차

그림 1.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20
그림 2.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22

## 서 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불안을 겪게 된다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고통과 제약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2006년 6.9%에서 2011년 8.7%로 증가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다음으로 높았으며, 일년 유병율은 2006년 5.0%에서 2011년 6.8%로 증가(36%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2). 사회불안장애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전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성적이고 평생 지속되는 장애로서(Bruce et al., 2005; Fresco & Heimberg, 2001),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 불안,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하고도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하지만 사회불안장애의 병인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DSM-IV에서 사회불안장애의 하위유형을 유발상황의 범위에 따라 양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생긴 문제일 수 있다. DSM-IV의 일반화된 하위유형의 개념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장애의 발달과정,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 또한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Bögels et al., 2010). DSM-5부터는 사회불안을 질적으로 구분하여 수행불안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라 유전적 요인, 발병 시기, 심리생리학적인 반응, 성격 특성, 인지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선행 연구(Hoffmann, Heinrichs, & Moscovitch, 2004; Hook & Valentiner, 2002; Kenny, 2005; 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로 미루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은 서로 다른 발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불안장애의 병인론에 대한 연구는 그 하위유형을 나누지 않고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Bideman et al., 2001;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Stein & Chavira,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서로 다른 기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위유형에 따른 치료적 개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불안장애의 개념 및 하위유형

사회불안이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불안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적당한 사회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행을 향상시키는 등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력, 학벌, 사회기능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imberg & Becker, 2002; Katzelnick et al., 2001),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일한 집단이기보다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eimberg, Hope, Dodge, & Becker, 1990). 따라서 사회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Schlenker와 Leary(1982)는 사회불안을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 범주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Kessler, Andrews, Mroczek, Ustun, & Wittchen, 1998; Leary, 1983; Liebowitz, 1987; Turner, Beidel, & Townsley, 1992)도 동의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이

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을 말한다. 반면에 수행불안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혹은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수행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을 말한다(박선영, 2003; Schlenker & Leary, 1982). 사회불안을 유발 상황의 특성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불안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 특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Beazley, Glass, & Chambless, 2001; Heimberg, Mueller, Holt, Hope, & Liebowitz, 1993; Ries et al., 1998).

사회불안 유발 상황의 특성에 따른 비합리적, 역기능적 신념의 차이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수행불안에 비해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와 더 높은 관련이 있었으며(김세은, 2005; Goldfried & Sobocinski, 1975), 수행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비해 완벽해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믿는 개인적 완벽주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선영, 2003; 최정훈, 이정윤, 1994). 즉,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끊임없이 고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영역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을 지니는 반면에,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을 하며 타인의 반응에 유관적이지 않은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 보다는 개인 내면의 유능성 영역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제시되었으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통제, 비밀관성, 타인으로부터 자식을 고립시키는 양육태도가 사회불안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4; 문경주, 오경자, 2002; 장효주, 2009; 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Bruch & Heimberg, 1994; Carter, Sbrocco, Lewis, & Friedman, 2001; Parker, 1979). 최근 부모 양육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더 높

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양육태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세분화하여 특정한 양육 유형 및 양육 차원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Davidov & Grusec, 2006). 특히 부모의 통제는 훈육, 요구, 강압, 죄의식 유발, 감독, 처벌, 제한, 애정철회 등 다양한 차원으로 개념화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연구됨으로써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Barber,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에 통제차원을 개념적으로 행동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행동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 관리하는 것(Barber, 1996)으로 보상, 처벌, 감독과 같은 훈육 전략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양육행동이다(Walling, Mills, & Freeman, 2007). 반면에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 Harmon, 2002). 즉,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Barber et al., 1994).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자기에 대한 통제와 침해이며, 암시적인 방법으로 미묘하게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자녀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 부모의 양육행동과는 차이를 보인다(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는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별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심리적 통제 행동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요구하며, 자녀의 성취 정도가 자신이 기대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죄의식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간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박성연과 이은경(2009)의 연구 결과 Soenens 등(2006)이 제안한 심

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침해 행동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자녀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적절감이 증가했으며, 불안 수준도 높았다(안명희, 2010). 또한 무시 및 수치심 유발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김송아, 2009).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음은 입증되어 왔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 차원들을 나누지 않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통제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리적 통제 하위유형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를 겪은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독립적인 삶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율성 발달이 저해되는데(Wood, 2006), 자율성 욕구의 좌절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감을 높여 사교적이고 주도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대인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아영, 2008). 또한 부모와의 지나친 심리적 유착은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지연, 2013)도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면에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수행불안과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요구하며, 자녀의 성취 정도가 자신이 기대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죄의식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간섭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

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부모의 애정이 철회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사회불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장선영, 2013; Johnson, Inderbutzen-Nolan, & Schapman, 20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비롯한 양육 관련 변인들과 자녀발달 및 행동 문제, 적응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고(정운주, 2004),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현재의 특정행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결과(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Young, Klosko, & Weishaar, 2003)로 미루어, 발달적 맥락 변인과 사회불안 사이에 매개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라는 매개변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 및 사회불안**

###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통제 및 사회불안**

거부민감성은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의 단서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을 말한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자녀는 거부에 민감해진다는 Bowlby(1980)의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거부 경험을 한 자녀는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경우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서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자녀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Downey, Khouri, &

Feldman, 1997)를 토대로 자녀의 행동에 따라 자녀에게 가치조건화와 정서적 거부의 경험을 제공하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거부민감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신희수, 안명희, 2013).

타인에게 안정적으로 수용을 받고 거부를 피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욕구 중 하나로써, 이러한 욕구의 좌절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호한 행동에 대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해석하기 때문에(Dodge & Somberg, 1987; Downey & Feldman, 1996),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을 위협으로 느끼며, 그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이 높았으며,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나영, 조유진, 2009; 박명주, 2012). Feldman과 Downey(1994)는 거부민감성이 사회 공포증의 핵심 요소라 주장하였다.

##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 및 사회불안

완벽주의란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Hollender, 1965). 완벽주의는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특성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바가 있을 만큼(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매우 많은 실정이다.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은 완벽주의를 성격적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완벽주의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개인의 기준과 조직화의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들(남궁혜정, 이영호, 2005; Dunkley Blanken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Slaney, Ashby, & Trippi, 1995)은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기준 차원을 기능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차원을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보았다. 실수에 대한 염려란 실수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며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해도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각한다.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과제 완수 능력에 대한 의심의 정도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실수의 평가나 인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행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지 않았다는 느낌과 관련된다(Frost et al., 1990).

Missildine(1963)은 완벽주의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로 표현해가면서 끊임없이 강요하는 부모의 요구로 인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애정을 철회하는 등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면,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Elliot & Thrash, 2004). Craddock, Church와 Sands(2009)는 부모의 민주적·권위주의적·허용적 양육행동과 함께 심리적 통제를 추가하여 이들과 자녀의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적 양육은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 모두를 예측하였지만,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반응성, 행동통제가 자녀의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Soenens et al., 2005)에서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양육행동만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Hamachek(1978)은 완벽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비승인, 비일관적 승인, 조건적 승인을 제시한 바 있다. 심리적 통제 하위요인 중 언어표현 제재, 감정무시와 인신공격은 자녀에게 비승인으로, 애정철회와 죄의식 심어주기의 경우 조건적 승인으로 경험되어, 대학생 자녀의 완벽주의가 발달되고 심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신희수, 안명희, 2013).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완벽주의 성향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이다(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

을 수행하기 전에 불안을 느끼기 쉽다(Ant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Flett, Endler, Tassone, & Hewitt, 1994; Sabbonchi & Lundh, 1997). 이런 특성 때문에 완벽주의는 다른 정신병리보다 타인들 앞에서의 수행을 두려워하는 수행불안과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or, Day, Flett, & Hewitt, 1995; Shafron & Mansell, 2001). Frost 등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6가지 하위차원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사회불안과 관련성이 가장 많고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구성요소였다(허재홍, 2006; Frost et al, 1990; Juster et al., 1996; Saboonchi & Lundh, 1997). 또한 실수에 대한 염려는 사회불안장애와 다른 불안장애를 가장 잘 구별해 주는 구성요소였다(Antony et al., 1998).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른 하위유형과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보이는 사람과 수행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불안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비합리적, 역기능적 신념을 보인다(김세은, 2005; 박선영, 2003; 최정훈, 이정윤, 1994; Goldfried & Sobocinski, 1975). 이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은 서로 다른 발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이 시사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김지연, 2013; 이지인, 박성연, 2008; 장선영, 2013; Johnson, Inderbutzen-Nolan, & Schapman, 2005; Wood, 2006)을 고려할 때, 심리적 통제의 하위유형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인 발생과정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찾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문제 사이에 매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정윤주, 2004; Barber, Bean, & Erickson, 2002; Young, Klosko, & Weishaar, 2003)에 동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되고 있는(Baumeister & Leary, 1995; Levvy, Ayduk, & Downey, 2001; Saboonchi & Lundh, 1997; Shafron & Mansell, 2001)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사회불안,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들 변인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통합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해 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하위유형과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질문지 연구를 보완하여, 사회불안 유발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과 수행불안 집단 간에 불안경험수준,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 연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연구 1의 목적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차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크기 차이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자녀의 감정에 조건적 승인을 보이는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며 (Kennedy, 1999; Soenens & Vansteenkiste, 2007),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Levy et al., 2001). 한편,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준을 강요하며, 자녀가 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드러내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 절하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게 되어, 타인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Burns, 1980; Elliot & Thrash, 2004; Juster et al., 1996).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설정한 연구 1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참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189명이었으며, 남자는 75명, 여자는 114명이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8세 범위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47세(표준편차 2.04)이었다.

### 측정 도구

**심리적 통제 척도(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APCS).**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조은주(2012)가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DAPCS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DPC) 8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PC) 9문항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려 할 경우 행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90,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79,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93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iebowitz(1987)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박선영(2003)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LSAS는 사회적 상호작용상황과 수행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측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13문항과

수행상황 9문항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다)에서 3점(몹시 불안하다) 사이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사회불안이 .95,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이 .93, 수행불안이 .91이었다.

####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복동(2000)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RSQ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18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거부에 대한 불안, 거부 예상의 두 가지 하위 차원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의 거부에 대한 불안 점수와 거부 예상 점수의 곱 점수를 모두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78로 나타났다.

#### **역기능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6가지 하위 차원 중 선행 연구(남궁혜정, 이영호, 2005; 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1998; Slaney et al., 1995)를 토대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하위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내적 일관성은 .88이었다.

### **자료분석**

SPSS for Windows(version 19.0)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차 검증은 Steiger's Z 계산을 이용하였다(Steiger, 1980).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추가적으로 상대적인 매개효과 크기 비교를 위해 Multiple Mediation Script(Preacher & Hayes, 2008)를 사용하였다.

## 결 과

연구 1의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 189명의 자료에서 얻은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 1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 모두에서 남녀 간 평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연구 1에서 수집된 측정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남자( $n=75$ )	여자( $n=114$ )	$t$
심리적 통제	34.01(9.76)	34.31(10.12)	33.82(9.55)	0.34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17.37(4.71)	16.80(4.23)	17.75(4.98)	-1.36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16.64(6.74)	17.51(7.11)	16.07(6.45)	1.44
사회불안	18.37(9.45)	18.32(10.18)	18.40(8.99)	-0.06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9.47(5.67)	9.51(6.08)	9.43(5.41)	0.09
수행불안	8.90(4.26)	8.80(4.47)	8.97(4.14)	-0.25
거부민감성	9.12(2.30)	9.27(2.12)	9.02(2.42)	0.70
역기능적 완벽주의	38.68(9.33)	39.49(9.65)	38.15(9.12)	0.96

표 2. 연구 1에서 수집된 측정치들의 상관계수(N=189)

	심리적 통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거부 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
심리적 통제	—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79***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0***	.44***	—					
사회불안	.38***	.36***	.30***	—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38***	.31***	.33***	.95***	—			
수행불안	.35***	.37***	.25***	.96***	.80***	—		
거부민감성	.28***	.30***	.19*	.50***	.48***	.47***	—	
역기능적 완벽주의	.37***	.27***	.36***	.62***	.59***	.59***	.35***	—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r(189)=.31, p<.001$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r(189)=.33, p<.001$ , 거부민감성,  $r(189)=.48, p<.001$ ,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r(189)=.59, p<.001$ ,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행불안 역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r(189)=.37, p<.001$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r(189)=.25, p<.001$ , 거부민감성,  $r(189)=.47, p<.001$ ,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r(189)=.59, p<.001$ ,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민감성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r(189)=.19, p<.05$ ,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r(189)=.30, p<.001$ , 더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Steiger's  $Z$  계산을 이용하여 상관차 검증을 한 결과,  $p<.05$  수준에서 상관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1.48, ns$ .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r(189)=.27, p<.001$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r(189)=.36, p<.001$ , 더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상관계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1.24, ns$ .

또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두 불안 유형간의 상관계수 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Z=-1.39, ns$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두 불안 유형간의 상관 계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1.81, ns$ .

##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30, p<.001$ , 2단계에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beta=.31, p<.001$ . 3단계에서 거부

민감성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1, p<.001$ .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대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2단계 방정식 보다,  $\beta=.31, p<.001$ , 3단계에서,  $\beta=.21, p<.01$ , 거부민감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감소하였으며, 부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75, p<.001$ .

상관 분석 결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27, p<.001$ , 2단계에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beta=.31, p<.001$ . 3단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5, p<.001$ .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대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2단계 방정식 보다,  $\beta=.31, p<.001$ , 3단계에서,  $\beta=.17, p<.01$ ,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감소하였으나, Sobel Test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1.88, ns$ .

종합해보면,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만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3.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B	$\beta$	$R^2$	F
1단계				
DPC → RS	0.15	.30***	.09	16.42***
2단계				
DPC → SIA	0.37	.31***	.10	19.72***
3단계				
DPC → SIA	0.25	.21**	.27	30.25***
RS → SIA	1.00	.41***		

주. DPC=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RS=거부민감성, SIA=사회적 상호작용불안.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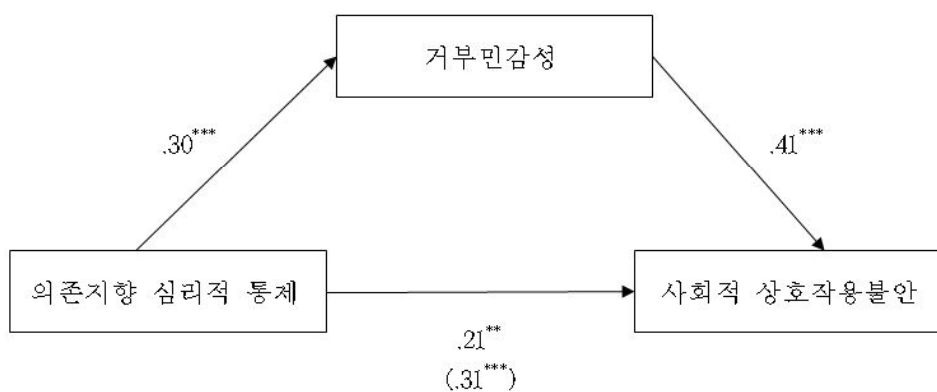


그림 1.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주. 경로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beta$ 값으로, 괄호 안은 거부민감성 매개변인 투입 이전의 회귀 계수임.

\*\* $p < .01$ . \*\*\* $p < .001$ .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36$ ,  $p<.001$ , 2단계에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25$ ,  $p<.01$ . 3단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수행불안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7$ ,  $p<.001$ . 이때 수행불안에 대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beta=.05$ ,  $ns$ ,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사이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3.70$ ,  $p<.001$ .

표 4.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APC → FMPS	0.50	.36***	.13	27.15***
2단계				
APC → PA	0.16	.25**	.06	12.18**
3단계				
APC → PA	0.03	.05	.35	48.65***
FMPS → PA	0.26	.57***		

주. APC=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PA=수행불안.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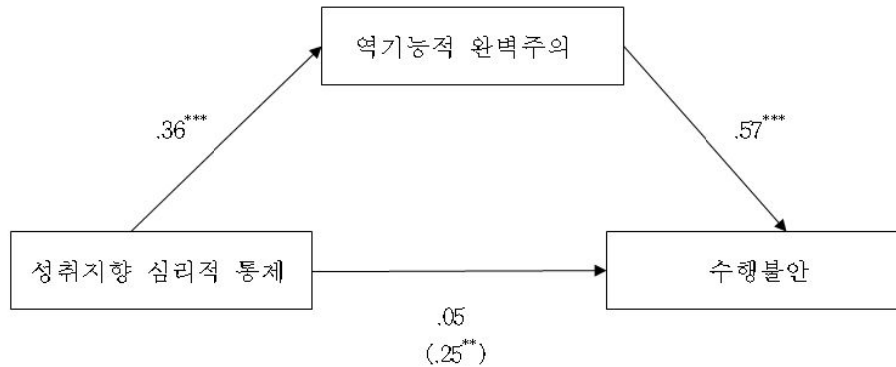


그림 2.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주. 경로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beta$ 값으로, 괄호 안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변인 투입 이전의 회귀계수임.

\*\* $p < .01$ . \*\*\* $p < .001$ .

상관 분석 결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거부민감성이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beta = .25 > \beta = .16$ ,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6.96$ ,  $p < .001$ .

즉,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완전 매개역할을, 거부민감성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Multiple Mediation Script(Preacher & Hayes, 2008)를 사용하여 두 변인의 상대적인 매개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Z = 3.58$ ,  $p < .001$ , 거부민감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5.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B	$\beta$	$R^2$	F
1단계						
APC	→	RS	0.07	.19*	.04	6.30***
2단계						
APC	→	PA	0.16	.25**	.06	12.18**
3단계						
APC	→	PA	0.01	.16*	.24	26.43***
RS	→		0.09	.44***		

주. APC=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RS=거부민감성. PA=수행불안.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Bootstrapping					
		Product of Coefficients		Percentile 95% CI		BC 95% CI	
	Point Estimate	SE	Z	Lower	Upper	Lower	Upper
Indirect Effects							
FMPS	.09	.03	3.58	.05	.15	.05	.15
RS	.04	.01	1.39	.00	.08	.00	.09
Total	.13	.03	4.98	.07	.20	.07	.20

주.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RS=거부민감성. BC=Bias Corrected. 1,000 bootstrap samples.

가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분석 결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모두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11-16 참고). 즉,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차별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의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았다.

###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beta=.38 > \beta=.27$ ,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3.39$ ,  $p<.001$  (표 7 참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역시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beta=.38 > \beta=.18$ ,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4.92$ ,  $p<.001$  (표 8 참고).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상대적인 매개효과 크기 비교 결과,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Z=1.01$ ,  $p<.001$ , 거부민감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고).

표 7.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DAPCS	→	RS	1.14	.28***	.08	13.73***
2단계						
DAPCS	→	SAD	0.29	.38***	.15	31.73***
3단계						
DAPCS	→	SAD	0.20	.27***	.32	38.35***
RS	→		0.08	.43***		

주. DAPCS=심리적 통제, RS=거부민감성, SAD=사회불안.

\*\*\* $p<.001$ .

표 8.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B	$\beta$	$R^2$	F
1단계						
DAPCS	→	FMPS	0.30	.37***	.14	30.23***
2단계						
DAPCS	→	SAD	0.29	.38***	.15	31.73***
3단계						
DAPCS	→	SAD	0.14	.18**	.41	64.27***
FMPS	→		0.33	.55***		

주. DAPCS=심리적 통제,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SAD=사회불안.

\*\* $p < .01$ . \*\*\* $p < .001$ .

표 9.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차이 검증

				Bootstrapping			
		Product of Coefficients		Percentile 95% CI		BC 95% CI	
Point Estimate	SE	Z		Lower	Upper	Lower	Upper
Indirect Effects							
RS	.06	.02	0.56	.02	.11	.02	.12
FMPS	.11	.03	1.01	.06	.18	.06	.18
Total	.18	.04	1.58	.11	.26	.10	.26

주. RS=거부 민감성,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BC=Bias Corrected, 1,000 bootstrap samples.

연구 1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만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 역할을,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매개효과 크기차이 검증 결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역기능적 완벽



주의의 매개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심리적 통제의 하위유형,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에,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와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사이에서 거부민감성만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부모로부터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며(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는 관계양상을 보인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를 행하는 부모처럼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비수용적일 경우 자녀는 타인이 자신을 지지하고 수용해줄지 염려하고, 타인의 거부를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부민감성을 발달시켜, 타인의 모호한 행동을 오해석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Dodge & Somberg, 1987; Downey & Feldman, 1996; Kennedy, 1999; Levvy, Ayduk, & Downey, 2001)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사이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여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자주 실망감을 표시하고 더 잘하도록 다그치는 등의 성취압력을 가하면, 자녀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부모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노정립, 2006; Elliot & Thrash, 2004).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절하 하여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며 수행불안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Juster et al., 1996)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자녀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거부민감성과,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

주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비슷한 자녀의 욕구에 비수용적인 양육태도, 자녀의 독립적인 정체감과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arber, 1996; Downwy & Feldman, 1996; Kennedy, 1999)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높은 상관은 부모가 자녀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조건적 승인이나 비승인을 보이면, 자녀는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지만 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강화되어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들(박은희, 2004; Burns, 1980; Hamachek, 1978)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 하위유형을 나누지 않은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도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모두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각 상황별 사회불안에 미치는 변인들이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불안의 하위유형 구분이 생태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수행불안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Cox, Clara, Sareen, & Stein, 2008; Holt, Heimberg, Hope, & Liebowitz, 1992)가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으로서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고 알려져 왔지만(Leary, 1983; Liebowitz, 1987; Mattick & Clarke, 1998), 경험적으로는 타당화 되지 못한 구분이라는 연구들(Habke, Hewitt, Norton, & Asmundson, 1997; Safren, Turk, & Heimberg, 1998) 역시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불안의 유형으로 구분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들이 독립적인 변인이라기 보다는 상호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기 때문에,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라

뚜렷한 발달적 맥락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비판이나 거부를 피하고 타인의 인정을 추구한다는 선행 연구(Habke & Flynn, 2002; Rudich, Sedikides, & Gregg, 2007; Wade, 1997; Wu & Wei, 2008)를 토대로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가 상호 관련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 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유사하게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역시 완벽주의적인 가족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박성연, 이은경, 2009). 완벽주의자들의 특성인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비판이 성취 장면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정서적 고립을 초래하며(Burns, 1980),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구성요소인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이 대인관계 불안과 관련 있다는 연구(김선은, 2011)에 근거하여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이 관련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 대상이 비임상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임상 집단에서는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차별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가능성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본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응답에 과장, 축소 또는 왜곡이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사회불안 하위유형간의 차별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1은 그동안 단일차원으로 연구된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사회불안 하위유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1은 설문지 연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 두 하위유형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회불안 하위유형 구분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 연구 2.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따른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연구 1의 결과는 비록 가설이 지지되긴 했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질문지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였고,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과 수행상황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시한 후 혼재불안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수행불안 집단, 통제 집단에게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 불안 활성화 정도를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에 대한 거부 예상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 수행상황 스크립트에 대한 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실수에 대한 염려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2에서 검증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은 수행상황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불안수준이 더 높고,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거부를 더 많이 예상하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설 2. 수행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상황보다 수행상황에서 불안수준이 더 높고, 수행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참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165명이었으며, 남자는 80명, 여자는 85명이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8세 범위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55세(표준편차 2.00)이었다.

### 측정도구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묘사한 스크립트 중 일부는 박서정(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립트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대학생들이 사회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조사한 최정훈과 이정윤(1994), Kocovski, Endler, Rector, & Flett(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과 수행상황을 묘사한 10개의 예비 스크립트에 대해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5명이 스크립트의 불안 정도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유발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불안 정도가 평균 5점 미만인 스크립트를 제외하고, 5점 이상을 받은 스크립트 중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상위의 스크립트를 상호작용 상황과 수행상황 별로 3개씩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스크립트를 선정하였다. 최종 6개 스크립트의 정서가 평균은 7.55점이다. 각각의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 제시 후,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 다면적 정서 형용사 체크리스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상황 질문지를 평정하였다. 각각의 수행상황 스크립트 제시 후,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 다면적 정서 형용사 체크리스트, 수행

불안 상황 질문지를 평정하였다.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 연구 참여자에게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제시한 후, 각각의 스크립트 내용에 대하여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를 0점(전혀 생생하게 상상하지 못하였다)에서 10점(매우 생생하게 상상하였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가 5점(보통이다) 미만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면적 정서 형용사 체크리스트(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MAACL).**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읽고 각 상황에서의 불안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Zuckerman과 Lubin(1965)이 개발하고 이영호(1980)가 번안한 다면적 정서 형용사 체크리스트(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단축형 중 불안을 나타내는 형용사 10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0점(특정 정서 상태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서 10점(특정 정서 상태를 아주 심하게 느꼈다) 사이로 평정하도록 하여 불안점수를 산출하였고, 표 11에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불안과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을 각각 SIA\_A, PA\_A로 명명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MAACL의 내적 일관성은 .97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질문지.**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 제시 후 각각의 상황에 대해 ‘위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거부 예상)’,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됩니까?(거부 두려움)’라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가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을 부록 10에 제시한 분석기준을 근거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평정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ICC=.73,  $p<.001$ . Likert 형식의 3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으며, 자료 분석 시에는 두 평정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처럼 각 상황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점수와 거부 예상 점수의 곱 점수를



모두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거부 민감성 점수로 보았다.

**수행상황 질문지.** 수행상황 스크립트 제시 후, 각각의 상황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2개의 문항(위의 상황에서 수행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완수할 것 같습니까?, 위의 상황에서 수행 중 얼마나 실수를 할 것 같습니까?)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각은 수행에 대한 만족감, 실수에 대한 염려를 묻는 질문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평정하였으며, 수행에 대한 만족감의 역코딩 점수와 실수에 대한 염려 점수를 합쳐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보았다.

## 자료분석

SPSS for Windows(version 19.0)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불안 활성화정도,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를 수행하였다.

## 결 과

### 혼재불안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수행불안 집단 및 통제 집단의 구성

사회불안 유발 상황의 특성에 따라 하위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김세은, 2005; 박선영, 2003)에서 불안 변인은 상위 30%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은 하위 40~50% 수준으로 기준점을 정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되, 사례수의 적절성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점수에서 상위 35% 이상, 수행불안 점수에서 하위 50% 이하인 경우로 선정하였고, 수행불안 집단은 수행불안 점수에서 상위 35% 이상,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점수에서 하위 50% 이하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또한 혼재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점수에서 모두 상위 35% 이상인 경우로 선정하였고, 통제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점수에서 모두 하위 35% 이하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표 10. 집단별 나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점수

	1 (n=34)	2 (n=9)	3 (n=13)	4 (n=41)	F	대비검증
나이	21.38 (2.09)	21.67 (2.00)	21.92 (2.69)	21.27 (1.41)	0.44	
LSAS_ SIA	30.13 (4.07)	26.44 (2.10)	21.04 (1.07)	16.74 (2.26)	142.76***	1>2>3>4
LSAS_ PA	23.01 (2.66)	17.33 (0.56)	20.54 (1.03)	13.28 (1.97)	206.96***	1>3>2>4

주. 1=혼재불안 집단. 2=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3=수행불안 집단. 4=통제 집단.  
LSAS\_SIA=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 LSAS\_PA=수행불안 척도,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001$ .

각 집단의 피험자 수는 혼재불안 집단 34명(남자 16명, 여자 18명),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9명(남자 5명, 여자 4명), 수행불안 집단 13명(남자 5명, 여자 8명), 통제 집단 41명(남자 22명, 여자 19명)이었으며, 집단 간 남녀 비율의 분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3, N=97)=0.77, ns$ .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별 평균 연령은 각각 21.38세, 21.67세, 21.92세, 21.27세였으며,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F(3, 93)=0.44, ns$ .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점수는 혼재불안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수행불안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F(3, 93)=142.76, p<.001$ , 수행불안의 점수는 혼재불안 집단, 수행불안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높았다,  $F(3, 93)=135.22, p<.001$ .

### 집단별 불안 활성화정도, 거부민감성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제시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 따라 불안 활성화 정도,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불안 활성화 정도,  $F(3, 93)=21.35, p<.001$ , 수행상황에서의 불안 활성화 정도에서,  $F(3, 93)=20.00, p<.001$ , 집단차가 유의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불안은 혼재불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이 수행불안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은 혼재불안,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네 집단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상황보다는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 예상,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F(3, 93)=0.43, ns$ ,  $F(3, 93)=1.19, ns$ ,  $F(3, 93)=0.25, ns$ .

수행상황 스크립트에 대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F(3, 93)=8.67, p<.001$ ,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F(3, 93)=9.06, p<.001$ ,

수행에 대한 의심에서,  $F(3, 93)=5.67$ ,  $p<.01$ , 집단차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실수에 대한 염려 수준은 혼재불안 및 수행불안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수행에 대한 의심 수준은 혼재불안 및 수행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보다 더 높았다.

**표 11. 집단별 스크립트에 대한 불안 활성화정도, 거부 민감성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

	1 (n=34)	2 (n=9)	3 (n=13)	4 (n=41)	<i>F</i>	대비검증
SIA_A	5.88(1.38)	5.60(1.90)	4.12(1.39)	3.38(1.11)	21.35***	1=2>3=4
RS	2.80(1.32)	2.79(1.09)	2.69(1.02)	2.08(0.73)	0.43	
RE	4.23(1.34)	3.67(0.86)	3.77(1.01)	3.39(0.67)	1.19	
RA	5.88(1.45)	5.88(1.13)	6.23(1.88)	5.56(1.73)	0.25	
PA_A	7.42(1.39)	7.11(1.70)	6.77(1.30)	4.67(1.61)	20.00***	1=2=3>4
DP	40.90(17.47)	27.98(12.62)	41.53(12.49)	25.38(12.06)	8.67***	1=3>4
COM	46.87(22.29)	35.53(20.22)	46.53(17.24)	25.89(14.15)	9.06***	1=3>4
DAA	34.94(17.23)	19.25(9.67)	36.53(10.11)	24.86(12.07)	5.67**	1=3>2

주. SIA\_A=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불안 활성화. RS=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거부민감성. RE=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거부 예상. RA=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PA\_A=수행상황에서의 불안 활성화. DP=수행상황에서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COM=수행상황에서의 실수에 대한 염려. DAA=수행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의심. 1=혼재불안 집단. 2=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3=수행불안 집단. 4=통제 집단.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01$ . \*\*\* $p<.001$ .

## 논 의

연구 2에서는 사회불안 성향자들을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라 혼재불안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 수행불안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고, 스크립트로 유발한 가상의 사회불안 상황에서 불안경험수준,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거부민감성과 수행 상황에서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은 수행불안집단에 비해서는 상호작용 스크립트에서 불안수준이 높았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상황보다 수행상황에서 더 심한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거부 예상 및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뿐 아니라 수행상황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수행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Cox et al., 2008; Holt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부민감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Downey, Feldman, & Ayduk, 2000; Levvy et al., 2001)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측정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에 대해 참여자가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서술한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여 1점에서 3점에 이르는 척도로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좁은 범위로 인해서 참여자들의 개인차가 충분히 극대화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집단 간 차이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게끔 하고, 이를 개인차가 잘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척도로 변환한 후 결과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수행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상황보다 수행상황에서 불안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에 비해 수행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수행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보다 실수에 대한 염려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높은 걱정 수준, 낮은 자신감과 관련되어 수행불안을 발생시키며(Frost et al., 1990; Juster et al., 1996; Minarik & Ahrens, 1996), 수행을 마친 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패감과 죄의식으로 인해 불안이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Hewitt & Flett, 1991)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연구 2에서는 가상적인 사회불안 유발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은 수행불안 집단보다 상호작용 상황에서 더 높은 불안을 보고하고, 수행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에 비해 수행상황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사회불안 하위유형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 중 합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이 서로 다른 발달적인 맥락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과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1에서는 심리적 통제 하위유형과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사이에서는 거부민감성만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사이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완전 매개역할을, 거부민감성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크기가 더 컸다. 그렇지만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하위유형을 나누지 않은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거부민감성이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가 더 컸다.

연구 2에서는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회불안 하위 집단 간에 상황에 따른 불안수준,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이 수행불안 집단보다 상호작용 상황에서 더 높은 불안을 경험했고, 수행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의심 수준은 수행불안 집단이 더 높았다. 그러나 거부민감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구성요소인 실수에 대한 염려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과 수행불안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사회불안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에,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일부 확인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의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Burns, 1980; Craddock et al., 2009; Downey & Feldman, 1996; Downey, Khouri, & Feldman, 1997; Flett & Singer, 1995; Kawamura, Frost, & Harmatz, 2002)와, 사회불안과 거부민감성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주장한 선행 연구(Baumeister & Leary, 1995; Juster et al., 1996; Levvy, Ayduk, & Downey, 2001; Saboonchi & Lundh, 1997; Saboonchi, Lundh, & Öst, 1999; Shafran & Mansell, 2001)에 부합하면서도 그 관계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이 상황 특정한 불안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안의 심리적 기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따른 하위유형 구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Holt et al., 1992; Perugi et al., 2001; Safren, Turk, & Heimberg, 1998; Sakurai et al., 2005), 경험적으로는 타당화되지 못한 연구들(Habke et al., 1997; Safren et al., 1998; Vriends, Becker, Meyer, Michael, & Margraf, 2007)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불안의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른 하위유형 구분이 경험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수행불안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Cox et al., 2008; Holt et al., 1992),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사회불안 유발상황에 따른 하위유형 구분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Vriend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수행상황에서도 높은 불안을 보였다. 물론 더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차별적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 결과, 부모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자녀 발달에 서



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거부민감성과 상관이 더 높았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녀가 의존적인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박성연, 이은경, 2009; Soenens & Vansteenkiste, 2007), 자녀가 대인 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수용과 지지 여부를 걱정하게 만들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Kennedy, 1999). 반면에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단지 부모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끊임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노력하게 함으로써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킨다(노정립, 2006; Elliot & Thrash, 2004).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과 수행불안 집단 간에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행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집단에 비해 수행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수행불안의 관련성을 주장한 선행 연구(Sabounch & Lundh, 1997; Whiting et al.,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수에 대한 염려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집단비교를 통해 검증할 만큼 집단 간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임상 집단이 아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불안의 상황 특정한 발달 과정을 차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심리적 통제 하위유형,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사회불안의 상황 특정한 발달적 맥락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따라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다름을 검증하였다. 이는 치료 장면에서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에게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완화시키는 치료적 개

입이 중요할 것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서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여 치료적 개입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그 동안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어온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가 자녀의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사회불안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관련성을 설문지 연구 이외에 가상적인 스크립트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주장한 선행 연구들(Antony et al., 1998; Frost et al., 1990; Minarik & Ahrens, 1996; Sabbonchi & Lundh, 1997; Shafron & Mansell, 2001; Shahar, Blatt, Zuroff, Krupnick, & Sotsky, 2004; Soenens et al., 2005)의 결과를 뒷받침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부모와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Barber & Harmon, 2002; Grych, Seid, & Fincham, 1992)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보고는 과장되거나 축소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모와 자녀 양쪽의 입장에서 모두 측정하여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동질적인 집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를 보이는 일반인 집단 및 임상 집단에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적 증상이

미미한 사회불안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비교를 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일반인 집단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연구 2에서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고 척도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명확한 분석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개인차가 잘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척도 범위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매개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여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자녀의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 사회불안 하위집단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6(3), 149-162.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4). 성인 사회공포증 및 공황장애 환자가 보고한 부모양육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4(1), 381-382.
- 김선은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세은 (2005). **발표불안집단과 사회불안 하위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아영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s), 111-134.
- 김지연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남궁혜정, 이영호 (2005).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17-936.
- 노정림 (2006).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명주 (2012). **자기긍정확인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서정 (2006). **대인관계유형에 따른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적 수행-타인기대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은희 (2004).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19-38.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호 (1980). **학습된 무력감에 있어서 비유관적 성공-실패의 경험이 과제수행과 우울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인,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3), 175-189.
- 장선영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사회불안의 관계: 아동의**

-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효주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중재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은주 (2012).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93-6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2), 1143-1154.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Monsma, A., & Bri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2), 183-187.
- Ayduk, Ö., Gyurak, A., & Luerk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Ö.,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azley, M. B., Glass, C. R., Chambless, D. L., & Arnkoff, D. B. (2001). Cognitive self-statements in social phobia: A comparison across three types of social situ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781–799.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érot, C., Friedman, D., Snidman, N., ... & Faraone, S. V. (2001). Further

-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 Bögels, S. M., Alden, L., Beidel, D. C., Clark, L. A., Pine, D. S., Stein, M. B., & Voncken, M. (2010). Social anxiety disorder: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DSM-V. *Depression and Anxiety*, 27(2), 168-189.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ume 3)*. New York: Basic Books.
- Bruce, S. E., 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 &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A 12-year prospective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79-1187.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2), 155-16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arter, M. M., Sbrocco, T., Lewis, E. L., & Friedman, E. K. (2001). Parental bonding and anxiety: Differences betwee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5(6), 555-569.
- Cox, B. J., Clara, I. P., Sareen, J., & Stein, M. B. (2008). The structure of feared social situations among individuals with a lifetime diagnosis of social anxiety disorder in two independent nationally representative mental health survey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4), 477-486.



- Craddock, A. E., Church, W., & Sands, A. (2009). Family of origin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fectionis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3), 136-144.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1), 213-224.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Khouri, H., & Feldman, S. I. (1997). Early interpersonal trauma and later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D. Cicchetti, & Toth (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85-114).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lliot, A. J., & Thrash, T. M.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957-97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lett, G. L., Endler, N. S., Tassone, C., & Hewitt, P. L. (1994). Perfectionism and components of state and trait anxiety. *Current Psychology*, 13(4), 326-350.
- Flett, G.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51, 50-61.
- Fresco, D. M., & Heimberg, R. G. (2001). Empirically supported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social phobia. *Psychiatric Annals*, 31(8), 489-500.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oldfried, M. R., & Sobocinski, D. (1975).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emotional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04-51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92-200.
- Habke, A. M., & Flynn, C. A. (2002). Interpersonal aspects of trait perfectionism.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51-18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bke, A. M., Hewitt, P. L., Norton, G. R., & Asmundson, G. (1997). The Social Phobia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 An exploration of the dimensions of social anxiety and sex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relations with patholog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9(1), 21-39.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ambrick, J. P., Turk, C. L., Heimberg, R. G.,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3). The experience of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18(1), 46-50.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Hope, D. A., Dodge, C. S., & Becker, R. E. (1990). DSM-III-R subtypes of social phobia: Comparison of generalized social phobics and public speaking phobic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3), 172-179.
- Heimberg, R. G., Mueller, G. P., Holt, C. S., Hope, D. A., & Liebowitz, M. R. (1993). Assessment of anxiety in social interaction and being observed by others: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r Therapy*, 23(1), 53-7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ffmann, S. G., Heinrichs, N., & Moscovitch, D. A. (2004). The nature and expression of social phobia: Toward a new classific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69–797.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 Holt, C. S., Heimberg, R. G., Hope, D. A., & Liebowitz, M. R. (1992). Situational domain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6*(1), 63–77.
- Hook, J. N., & Valentiner, D. P. (2002). Are specific and generalized social phobias qualitatively distinct?.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4), 379–395.
- Johnson, H. S., Inderbitzen-Nolan, H. M., & Schapman, A. M. (2005). A comparison between socially anxiou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th: A focus on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4), 423–442.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403–410.
- Katzelnick, D. J., Kobak, K. A., DeLeire, T., Henk, H. J., Greist, J. H., Davidson, J. R., & Helstad, C. P. (2001). Impact of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in managed car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2), 1999–2007.
- Kawamura, K. Y., Frost, R. O., & Harmatz, M. G. (2002).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to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2), 317–327.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style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2), 171–180.
- Kenny, D. T. (2005). A systematic review of treatments for music

- performance anxiety. *Anxiety, Stress, and Coping*, 18(3), 183–208.
- Kessler, R. C., Andrews, G., Mroczek, D., Ustun, B., & Wittchen, H. U. (199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short-form (CIDI-SF).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7(4), 171–185.
- Kocovski, N. L., Endler, N. S., Rector, N. A., & Flett, G. L. (2005). Ruminative coping and post-event processing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8), 971–984.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1), 66–75.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Interpersonal Rej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Minarik, M. L., & Ahrens, A. H. (1996). Relations of eating behavior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mong undergraduate wo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2), 155–169.
- Missildine, W. H. (1963). Perfectionism—If you must strive to do better. In W. H. Missildine(Ed.), *Your inner child of the past*(pp. 75–90). New York: Pocket Books.
-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artis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2), 207–225.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rait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in a non-clinical group. *Australasian Psychiatry*, 13(3), 260–264.
- Perugi, G., Nassini, S., Maremmanni, I., Madaro, D., Toni, C., Simonini, E., & Akiskal, H. S. (2001). Putative clinical subtypes of social phobia: a factor analytica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4), 280–28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ies, B. J., McNeil, D. W., Boone, M. L., Turk, C. L., Carter, L. E., & Heimberg, R. G. (1998). Assessment of contemporary social phobia verbal report instrum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0), 983–994.
- Rudich, E. A., Sedikides, C., & Gregg, A. P. (2007). Self esteem moderates preferences for accepting versus rejecting interaction part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5), 955–967.
- Saboonchi, F., & Lundh, L. G.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921–928.
- Saboonchi, F., Lundh, L. G., & Öst, L. G. (1999).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9), 799–808.
- Safren, S. A., Turk, C. L., & Heimberg, R. G. (1998). Factor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43–453.
- Sakurai, A., Nagata, T., Harai, H., Yamada, H., Mohri, I., Nakano, Y., ... & Furukawa, T. A. (2005). Is “relationship fear” unique to Japan?

- Symptom factors and patient clusters of social anxiety disorder among the Japanese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1), 131-137.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 Shafr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 Krupnick, J. L., & Sotsky, S. M. (2004). Perfectionism impedes social relations and response to brief treatment for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40-154.
-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4), 279-29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enens, B., Elliot, A. J., Goossens, L., Vansteenkiste, M., Luyten, P., & Duriez, B. (200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erfectionis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s an intervening variab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58-366.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MA.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4), 539-559.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Steiger, J. H. (1980). Tests for comparing elements of a correlation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87(2), 245-251.
- Stein, M. B., & Chavira, D. A. (1998). Subtypes of social phobia and comorbidity with depression and other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0, S11-S16.
-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526-531.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 Vriends, N., Becker, E. S., Meyer, A., Michael, T., & Margraf, J. (2007). Subtypes of social phobia: Are they of any us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1), 59-75.



- Wade, J. C. (1997). *Perfectionism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ult children from dysfunctional but non-alcoholic families, and adults from nondysfunctional families*.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Walling, B. R., Mills, R. S., & Freeman, W. S. (2007). Parenting cognition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5), 642-659.
- Whiting, S. E., Jenkins, W. S., May, A. C., Rudy, B. M., Davis, T. E., & Reuther, E. T. (2013).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social anxiety subtyp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 1-13.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1), 73-87.
- Wu, T. F.,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276-288.
- Young, P. J. E., Klosko, P.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Guilford Publication.
- Zuckerman, M., & Lubin, B. (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부 록

부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DAPCS) .....	60
부록 2. 사회불안 척도(LSAS) .....	64
부록 3. 거부민감성 척도(RSQ) .....	67
부록 4. 역기능적 완벽주의 척도(FMPS) .....	71
부록 5.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 .....	73
부록 6. 생생하게 상상한 정도 .....	75
부록 7. 다면적 정서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 .....	75
부록 8.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질문지 .....	76
부록 9. 수행상황 질문지 .....	76
부록 10. 거부민감성 내용분석 기준 .....	77
부록 11.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79
부록 12.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79
부록 13.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	80
부록 14.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80
부록 15.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81
부록 16.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	81

## 부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DAPCS)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전반적인 부모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도저히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중립적 반응을 나타내는 3번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신다.	1	2	3	4	5
2.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즐겨했던 일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날 나무라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즐겨했던 일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날 나무라신다.	1	2	3	4	5
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집을 완전히 떠나 독립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집을 완전히 떠나 독립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1	2	3	4	5

4.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솔직히 터놓고 지내 지 않으면 실망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솔직히 터놓고 지내 지 않으면 실망하신다.	1	2	3	4	5
5.	나의 아버지는 내가 중요한 결 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아버지 의 조언에 의지 할 때만 행복해 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중요한 결 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어머니 의 조언에 의지 할 때만 행복해 하신다.	1	2	3	4	5
6.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만 내게 사랑을 보이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와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만 내게 사랑을 보이신다.	1	2	3	4	5
7.	나의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조차 내 문제에 간섭을 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조차 내 문제에 간섭을 하신다.	1	2	3	4	5
8.	나의 아버지는 내가 친구 대신 아버지에게 의지할 때만 다정하 게 해주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친구 대신 어머니에게 의지할 때만 다정하	1	2	3	4	5

게 해주신다.

9.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나를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나를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1	2	3	4	5
10.	나의 아버지는 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를 소홀하게 대하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를 소홀하게 대하신다.	1	2	3	4	5
11.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내게 사랑(애정)을 덜 보이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내게 사랑(애정)을 덜 보이신다.	1	2	3	4	5
12.	나의 아버지는 나의 성과가 남 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나의 성과가 남 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1	2	3	4	5
1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좋은 등급 (점수)을 받았을 때만 내게 사 랑(애정)을 보이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좋은 등급	1	2	3	4	5

(점수)을 받았을 때만 내게 사랑(애정)을 보이신다.

14.	나의 아버지는 내가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될 때만 나를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	--	---	---	---	---	---

	나의 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될 때만 나를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	--	---	---	---	---	---

15.	나의 아버지는 내가 모든 일을 뛰어나게 잘 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1	2	3	4	5
-----	--	---	---	---	---	---

	나의 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을 뛰어나게 잘 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1	2	3	4	5
--	--	---	---	---	---	---

16.	나의 아버지는 내가 목표치를 높게 세울 때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신다.	1	2	3	4	5
-----	---	---	---	---	---	---

	나의 어머니는 내가 목표치를 높게 세울 때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신다.	1	2	3	4	5
--	---	---	---	---	---	---

17.	나의 아버지는 시험점수를 잘 받을 때만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1	2	3	4	5
-----	------------------------------------	---	---	---	---	---

	나의 어머니는 시험점수를 잘 받을 때만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1	2	3	4	5
--	------------------------------------	---	---	---	---	---

## 부록 2. 사회불안 척도(LSAS)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래 제시된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문항	전혀 불안하지 않다	조금 불안 하다	상당히 불안 하다	몹시 불안 하다
1.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할 때	0	1	2	3
2. 소모임에 참여할 때	0	1	2	3
3.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0	1	2	3
4.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0	1	2	3
5.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0	1	2	3
6. 청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0	1	2	3
7. 사교적인 모임에 갈 때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0	1	2	3
9.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를 쓸 때	0	1	2	3
10.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0	1	2	3
11.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0	1	2	3
12.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날 때	0	1	2	3
13.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	0	1	2	3
14.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0	1	2	3
15.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0	1	2	3
16. 시험 볼 때	0	1	2	3
17.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	0	1	2	3

	할 때				
18.	잘 모르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0	1	2	3
19.	모임에서 발표할 때	0	1	2	3
20.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	0	1	2	3
21.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때	0	1	2	3
22.	물건을 사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0	1	2	3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이 상황을 회피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문항	전혀 회피하지 않는다	가끔 회피한 다	자주 회피한 다	항상 회피한 다
1.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할 때	0	1	2	3
2.	소모임에 참여할 때	0	1	2	3
3.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0	1	2	3
4.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0	1	2	3
5.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0	1	2	3
6.	청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0	1	2	3
7.	사교적인 모임에 갈 때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0	1	2	3
9.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를 쓸 때	0	1	2	3
10.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0	1	2	3
11.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0	1	2	3
12.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날 때	0	1	2	3
13.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	0	1	2	3
14.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0	1	2	3
15.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0	1	2	3



때					
16.	시험 볼 때	0	1	2	3
17.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	0	1	2	3
18.	잘 모르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0	1	2	3
19.	모임에서 발표할 때	0	1	2	3
20.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	0	1	2	3
21.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때	0	1	2	3
22.	물건을 사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0	1	2	3

### 부록 3. 거부민감성 척도(RSQ)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상황을 읽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꽤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상황 1.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						
	노트를 빌려주지 않을지에 대해 걱 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노트를 빌려 줄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2.	친구에게 이사 와서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친구가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 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친구가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들 일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3.	부모님께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 한다.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시지 않을 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4.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 한다.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	1	2	3	4	5	6

상한다.

상황 5.	당신의 이성파트너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이성파트너와 함께 있고 싶은 당신은 그(그녀)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이성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이성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6.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7.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실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8.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9.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의한다.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0.	졸업하고 난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활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부모님이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1.	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의한다.						
	친구가 여행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친구가 여행 제의를 받아들여주리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12.	이성파트너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이성파트너가 만남을 거절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이성파트너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13.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4.	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거절할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5.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6.	이성파트너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						
	이성파트너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이성파트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7.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요청한다.						
	그(그녀)가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그(그녀)가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8.	이성파트너에게 부모님을 만나러와 달라고 요청한다.						
	이성파트너가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이성파트너가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 부록 4. 역기능적 완벽주의 척도(FMPS)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2.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무슨 일이든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1	2	3	4	5
5. 만일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1	2	3	4	5
6. 실수를 한다면 속상할 것이 분명하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모두를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8.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1	2	3	4	5
9. 나는 무슨 일에서든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10.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를 낮게 할 것 같다	1	2	3	4	5
11.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느낀다.	1	2	3	4	5

- |     |                                 |   |   |   |   |   |
|-----|---------------------------------|---|---|---|---|---|
| 12. | 항상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13. |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 부록 5. 사회불안 상황 스크립트

### \*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스크립트

1.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여성과 단 둘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카페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대화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차를 다 마신 후 영화를 보자고 상대방에게 제안합니다.

2. 나는 전공과목 수업을 듣는 중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평소에 교수님을 수업 때에만 만나 뵈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내 얼굴은 아시지만 내 이름은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우르르 강의실을 빠져 나가고 있으며, 교수님도 책과 가방을 챙겨서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십니다. 나는 강의실 밖을 나가시려는 교수님께 질문 할 것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어 봅니다.

3. 나는 며칠 전 전자상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작동시켜 보았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새 상품으로 교환하러 구입한 가게로 갑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파는 가게는 매우 커다란 전자 상가 한쪽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자 점원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판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점원에게 다가가 교환을 요청합니다.



\* 수행상황 스크립트

1. 나는 오늘 120명이 수강하는 전공과목에서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나는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발표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많은 시간 동안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고 다른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신 후, 나에게 발표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강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강단을 향해 걸어갑니다. 강단으로 나가는 나를 따라 움직이는 120명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강단위에 올라선 후, 앉아있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의실 내에 있는 모든 불이 켜져 있어서 강의실은 매우 환했고, 학생들 한명 한명의 얼굴 표정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학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강단위에 올라서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2.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입사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입사 경쟁률은 200:1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도 올 해에 이 기업에 꼭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명의 경쟁자와 나란히 앉아 있으며, 내 앞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습니다. 면접관이 모든 지원자에게 입사 동기를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의 2명의 지원자는 막힘없이 대답을 하였고 면접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면접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원 서류를 훑어본 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면접관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주어 좋은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3. 80명가량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얼굴은 알지만 친하지는 않습니다. 강의 도중 교수님께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수님께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심어드리고 싶으며, 수업에서 A+를 받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자, 강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교수님과 주변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집니다.



## 부록 8. 사회적 상호작용상황 질문지

- \*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됩니까?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9. 수행상황 질문지

- \* 위의 상황에서 수행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완수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점

- \* 위의 상황에서 수행 중 얼마나 실수를 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점

## 부록 10. 거부민감성 내용분석 기준

\*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내용분석 기준 표

		부여 점수		
		1점	2점	3점
1번 script	걱정되는 것이 없다. 거부이외의 다른 걱정 (예: 주선자에게 폐를 끼칠까봐, 어떤 종류 의 영화를 볼 것인가, 영화 보러 가자는 말 을 언제 할지, 이야기 거리를 계속 생각해 내는 것 등)	별로 없지만 제안이 거절당하는 것이 걱정 된다, 거절하지 않을 까봐 약간 걱정 된다 등	영화 보러 가자는 제 안을 거절당하는 것이 가장 걱정 된다 등	
2번 script	걱정되는 것이 없다. 거부이외의 다른 걱정 (예: 질문이 형편없는 것 일까봐,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는데도 완 벽히 이해하지 못할까 봐, 내가 질문하는 것 에 대해 친구들이 어 떻게 생각할지 등)	걱정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교수님이 질문 을 안 받아 주실까봐 걱정 된다 등	교수님께서 질문을 안 받아 주실까봐 걱정된 다, 교수님께서 그냥 가실까봐 걱정 된다 등	
3번 script	걱정되는 것이 없다. 거부이외의 다른 걱정 (예: 교환하러 상점까 지 다시 가는 것이 귀 찮다 등)	교환을 해 주지 않을 까봐 약간 걱정 된다, 딱히 없지만 교환 요 청을 거부할까봐 걱정 된다 등	점원이 교환을 해 주 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등	

\* 거부 예상 내용분석 기준 표

		부여 점수		
		1점	2점	3점
1번 script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승낙할 것이다, 좋다고 할 것이다 등	좋은 척 하며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싫지만 주선자에 대한 예의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다 등	거절할 것이다, 싫다고 하며 자리를 뜰 것이다 등	
2번 script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등	바쁘시다며 나중에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하신다,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메일로 질문하라고 하신다 등	그냥 가신다, 귀찮아 하시며 다른 장소로 이동 하신다 등	
3번 script	친절하게 교환해 줄 것이다, 바꿔줄 것이다 등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교환을 요청해야 비로소 해 준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가 화를 내고 싸운 후 교환해 준다 등	무조건 교환이 안 된다고 한다, 화를 내며 교환해 주지 않는다 등	

## 부록 11.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DPC	→ RS	0.15	.30***	.09	16.42***
2단계					
DPC	→ PA	0.30	.37***	.13	29.79***
3단계					
DPC	→ PA	0.23	.30***	.30	35.13***
RS	→ PA	0.08	.38***		

주. DPC=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RS=거부민감성, PA=수행불안.

\*\*\* $p < .001$ .

## 부록 12.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DPC	→ FMPS	0.52	.27***	.07	14.00***
2단계					
DPC	→ PA	0.30	.37***	.13	29.79***
3단계					
DPC	→ PA	0.21	.23***	.39	59.97***
FMPS	→ PA	0.24	.52***		

주. DPC=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PA=수행불안.

\*\*\* $p < .001$ .

### 부록 13.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Product of Coefficients		Bootstrapping			
				Percentile 95% CI		BC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Point Estimate	SE	Z	Lower	Upper	Lower	Upper	
Indirect Effects							
RS	.07	.03	0.38	.03	.13	.03	.14
FMPS	.10	.03	0.52	.04	.17	.05	.18
Total	.17	.04	0.90	.09	.27	.10	.26

주. RS=거부 민감성,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BC=Bias Corrected, 1,000 bootstrap samples.

### 부록 14.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APC → RS	0.07	.19*	.03	6.30*
2단계 APC → SIA	0.02	.33***	.11	22.59***
3단계 APC → SIA	0.02	.23**	.28	31.51***
RS → SIA	0.08	.43***		

주. APC=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RS=거부민감성, SIA=사회적 상호작용불안.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15.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B	$\beta$	$R^2$	F
1단계						
APC	→	FMPS	0.50	.36***	.13	27.15***
2단계						
APC	→	SIA	0.28	.33***	.10	22.59***
3단계						
APC	→	SIA	0.12	.14*	.37	53.47***
FMPS	→		0.33	.53***		

주. APC=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SIA=사회적 상호작용불안.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16.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Bootstrapping					
		Product of Coefficients		Percentile 95% CI		BC 95% CI	
	Point Estimate	SE	Z	Lower	Upper	Lower	Upper
Indirect Effects							
RS	.05	.03	0.48	.00	.10	.01	.11
FMPS	.12	.03	1.15	.06	.19	.06	.19
Total	.17	.05	1.64	.08	.26	.09	.27

주. RS=거부 민감성, FMPS=역기능적 완벽주의, BC=Bias Corrected, 1,000 bootstrap samples.



## **Abstract**

###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Sin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In study 1, with the participation of 189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were t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has effects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ly via partial medi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has effects on performance anxiety both via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via rejection sensitivity, but dysfunctional perfectionism showed greater mediating effect.

With the participation of 165 college students, study 2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ituation-specific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group and the performance anxiety group.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group reported more high anxiety level in the social interaction situation than the performance anxiety group.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in rejection sensitivity and concern over mistake. However, the performance anxiety group showed more doubt about actions than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group.

In sum, this study suggested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Th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vention to social anxiety via reducing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dysfunctional perfectionism**

***Student Number : 2012-20107***



## 감사의 글

먼저, 2년 동안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로 지도해 주신 이훈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권석만 교수님과 김청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사 선생님들, 선배님들,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논문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박세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함께 의지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다예, 효영 언니, 혜진씨, 윤희씨, 미소, 성민오빠, 혁진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